

V.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영향 분석 및 시사점

<통계자료>

- 본 분석의 통계자료는 보험개발원에 집계된 '06.4월~11월의 손해상황자료 및 FY'05년 체결된 계약(개인용 자동차보험 및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전계약이 1년 이상인 계약 통계를 사용함
- '06.4월~11월 손해상황 자료는 방카슈랑스 대상물건이 주로 일반물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물건 자료를 대상으로 사용하였음
- FY'05년 체결된 계약자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 지역, 할인할증, 가입경력, 차량가액, ... 등등 변수별로 추출한 자료이며, 이 중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 연령, 성, 지역, 할인할증, 가입경력을 변수로 사용하였음

1. 소비자 특성분석을 통한 방카슈랑스 계약 추정

<요 점>

- 보험계약자 이동 특성을 보면 보험료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즉 고연령층 및 할인할증률이 낮은 계층, 가입경력이 높은 계층의 보험계약 이동가능성이 낮음
-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될 비율은 도입 이후 5차년도에 전체의 15.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도입 5년차에서 대형사는 15.0% 수준, 중소형사는 21.6% 수준이 방카슈랑스의 영향을 받고, 비대면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은 가격할인 상품과 비할인 상품이 공존함
 - 따라서 가격이 할인된 방카슈랑스 상품이 도입되더라도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특성 범위 내에서 방카슈랑스 계약

구성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을 시행함

가. 보험계약 이동자의 특성 분석

□ Logit 회귀분석을 통한 변경계약의 특성분석

○ 모형 : $Log \frac{P(Y)}{1-P(Y)} = \alpha + \beta \cdot X$

여기서, X : 성별, 연령, 지역, 할인할증, 가입경력임

$P(Y)$: 보험회사를 변경할 확률

- 변수구분 : 연령은 5세 군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은 우편번호를 이용한 행정구역상 광역시도로 구분하였음(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변수별 구분 표를 참조)

○ 분석방법

- Logit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단변량별로 통계의 유의성을 파악하여, 통계자료와 비교분석을 수행
-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수들을 모두 사용한 다변량 분석으로 변경계약의 특성을 분석

<표 V-1> 변수별 구분표

구분	성	연령	지역	할인할증	가입경력
중분류	남자, 여자	20세 미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란, 경기,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40,45,50,60, 70,80,90,100,110, 120,130,140,150, 160,170,180, 190,200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54세			
		55세~59세			
		60세~64세			
		65세~69세			
70세이상					

□ 단변량 분석 결과

- 성별 변경확률은 실제자료와 분석자료간 큰 차이가 없으며, 성별 자료도 변경확률 추정의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됨
- 남·여간 변경확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여성이면서 30대 및 4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V-2> 성별 변경확률

구 분	실제자료	분석자료		
		추정값	추정 변경확률	p-value
남자	0.2314	-0.0854	0.2315	<.0001
여자	0.2469	0	0.2470	.

자료 : FY'05 보험회사 실적자료

- 연령별 변경확률은 실제값과 추정값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9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에는 변경확률 계산에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저연령과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30대 및 40대)의 변경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저연령층의 경우 보험료 수준이 높으므로 낮은 보험료를 찾아 회사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으며, 30대 및 40대의 경우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므로 주위의 권유 등 변경유인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에 기인함

<표 V-3> 연령별 변경확률

연령그룹	실제자료	분석자료		
		추정값	추정변경확률	p-value
~19세 이하	0.1937	0.1947	0.1942	0.1188
20~24세	0.3565	1.0274	0.3565	<.0001
25~29세	0.3474	0.9885	0.3477	<.0001
30~34세	0.2939	0.7423	0.2941	<.0001
35~39세	0.2498	0.5178	0.2497	<.0001
40~44세	0.2235	0.3719	0.2234	<.0001
45~49세	0.2074	0.2760	0.2072	<.0001
50~54세	0.1988	0.2228	0.1986	<.0001
55~59세	0.1946	0.1968	0.1945	<.0001
60~64세	0.1881	0.1532	0.1878	<.0001
65~69세	0.1775	0.0828	0.1773	<.0001
70세 이상~	0.1656	0	0.1655	

자료 : FY'05 보험회사 실적자료

- 지역별 변경확률은 대전,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 변수들이 변경확률을 추정하는 변수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경우 타 지역보다 변경확률이 높은 것은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저 연령층 및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지방지역의 경우도 변경확률은 보험료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즉 사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북, 대전지역의 경우 변경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판매조직이 적은 회사, 특히 소형사들의 경우 지방지역에서 시장점유율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은행 판매조직의 판매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방의 경우 고연령계층의 비율이 높으므로 앞서 연령별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변경가능성이 낮아 도시지역보다 방카슈랑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음

<표 V-4> 지역별 변경확률

지역	실제자료	분석자료		
		추정값	추정변경확률	p-value
서울	0.2522	0.0358	0.2523	<.0001
부산	0.2373	-0.0450	0.2373	<.0001
대구	0.2268	-0.1040	0.2268	<.0001
인천	0.2678	0.1179	0.2681	<.0001
광주	0.2551	0.0511	0.2552	<.0001
대전	0.2442	-0.0078	0.2441	0.4015
울산	0.2079	-0.2160	0.2078	<.0001
경기	0.2466	0.0058	0.2466	0.4858
강원	0.1904	-0.3264	0.1902	<.0001
충북	0.2172	-0.1600	0.2171	<.0001
충남	0.1940	-0.3009	0.1941	<.0001
전북	0.2060	-0.2279	0.2058	<.0001
전남	0.2204	-0.1416	0.2203	<.0001
경북	0.1997	-0.2661	0.1996	<.0001
경남	0.2142	-0.1775	0.2142	<.0001
제주도	0.2455	0	0.2456	.

자료 : FY'05 보험회사 실적자료

- 할인할증별 변경확률은 고할증계층(할인할증률 120%이상)의 경우 변경확률을 설명하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변경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험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보험료 수준이 낮아지고, 가입대상 연령대가 고연령계층이므로 변경 유인요소에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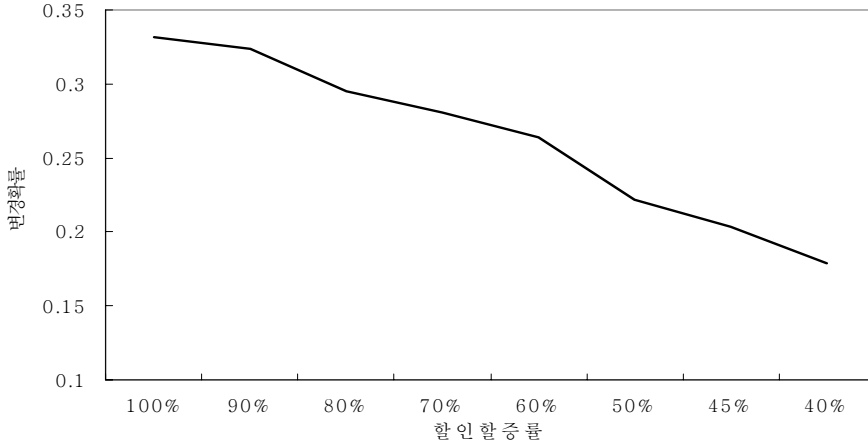
<표 V-5> 할인할증별 변경확률

할인할증	실제자료	분석자료		
		추정값	추정변경확률	p-value
40	0.1722	-1.0654	0.1722	<.0001
45	0.1969	-0.9009	0.1969	<.0001
50	0.2166	-0.7807	0.2166	<.0001
60	0.2502	-0.5927	0.2502	<.0001
70	0.2724	-0.4779	0.2724	<.0001
80	0.2887	-0.3969	0.2887	<.0001
90	0.3291	-0.2076	0.3291	0.0012
100	0.3231	-0.2351	0.3230	0.0003
110	0.3372	-0.1711	0.3372	0.0078
120	0.3499	-0.1147	0.3499	0.0752
130	0.3591	-0.0747	0.3591	0.2483
140	0.3564	-0.0868	0.3563	0.1848
150	0.3671	-0.0398	0.3671	0.5495
160	0.3707	-0.0247	0.3707	0.7192
170	0.3630	-0.0578	0.3630	0.4321
180	0.3829	0.0275	0.3829	0.7367
190	0.4072	0.129	0.4072	0.1755
200	0.3764	0	0.3764	.

자료 : FY'05 보험회사 실적자료

- 이상 단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보험회사 이동과 보험료 수준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보험회사 변경률과 보험가입기간과는 높은 역의 상관관계(-98.7%)를 보임

<그림 V-1> 가입기간(할인할증률)에 따른 변경확률



- 가입경력별 변수는 변경확률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 가입경력이 오래될수록 변경확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가입경력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인이 많이 되고, 고연령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표 V-6> 가입경력 변경확률

가입경력	실제자료	분석자료		
		추정값	추정변경확률	p-value
2년	0.3609	0.5259	0.3609	<.0001
3년	0.3101	0.2978	0.3101	<.0001
4년	0.2781	0.1453	0.2785	<.0001
5년	0.2165	-0.1846	0.2172	<.0001
6년	0.2612	0.0588	0.2614	<.0001
7년	0.2461	-0.0217	0.2462	<.0001
8년	0.2049	-0.2605	0.2046	<.0001
9년	0.2508	0	0.2502	.

주: 동 자료는 FY'05중 체결된 계약 중 과거 1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최초가입경력은 없음
 자료: FY'05 보험회사 실적자료

□ 다변량 분석 결과

- 단변량 분석과 유사하게 모든 변수들(성, 연령, 지역, 가입경력 및 할인할증)이 보험계약 변경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 분석결과
 - Log Likelihood값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동 Logit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성은 남녀 구분 없이 변경가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의 경우도 1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변경가능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은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 변수가 변경확률을 계산하는 변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할인할증요소는 고할인계층 가입경력은 전 가입경력계층이 변경확률을 설명하는 변수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변경률 추이는 앞서 검토한 단변량 분석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V-7> 모형의 적합성

Criteria For Assessing Goodness Of Fit			
Criterion	DF	Value	Value/DF
Deviance	15E5	7759936.9404	5.1532
Scaled Deviance	15E5	7759936.9404	5.1532
Pearson Chi-Square	15E5	7313401.2504	4.8567
Scaled Pearson X2	15E5	7313401.2504	4.8567
Log Likelihood		-3879968.470	

<표 V-8> Logit 회귀분석결과

Analysis Of Parameter Estimates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95% Confidence Limits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4691	0.0657	-0.5978	-0.3403	50.98	<.0001
sex	1	0.0186	0.0022	0.0142	0.0230	68.73	<.0001
sex	2	0.0000	0.0000	0.0000	0.0000	.	.
age1	19	0.0244	0.1260	-0.2226	0.2714	0.04	0.8464
age1	20	0.7154	0.0147	0.6865	0.7443	2352.93	<.0001
age1	25	0.7498	0.0094	0.7313	0.7683	6301.47	<.0001
age1	30	0.6142	0.0090	0.5966	0.6318	4673.55	<.0001
age1	35	0.4730	0.0089	0.4556	0.4905	2824.18	<.0001
age1	40	0.3561	0.0089	0.3386	0.3736	1596.26	<.0001
age1	45	0.2561	0.0090	0.2386	0.2737	818.26	<.0001
age1	50	0.1966	0.0091	0.1787	0.2144	466.55	<.0001
age1	55	0.1658	0.0093	0.1475	0.1840	317.47	<.0001
age1	60	0.1308	0.0097	0.1118	0.1499	181.69	<.0001
age1	65	0.0844	0.0106	0.0636	0.1051	63.36	<.0001
age1	70	0.0000	0.0000	0.0000	0.0000	.	.
ter1	01seoul	0.0024	0.0085	-0.0142	0.0191	0.08	0.7738
ter1	02pusan	-0.0702	0.0090	-0.0878	-0.0526	61.42	<.0001
ter1	03daegu	-0.0999	0.0090	-0.1176	-0.0821	121.92	<.0001
ter1	04inche	0.0384	0.0090	0.0207	0.0561	18.01	<.0001
ter1	05kyung	0.0081	0.0096	-0.0107	0.0269	0.72	0.3975
ter1	06daeju	-0.0712	0.0095	-0.0897	-0.0526	56.55	<.0001
ter1	07ulsan	-0.2144	0.0099	-0.2338	-0.1949	466.53	<.0001
ter1	08kyung	-0.0573	0.0085	-0.0739	-0.0408	45.99	<.0001
ter1	09kangw	-0.3401	0.0098	-0.3594	-0.3209	1200.08	<.0001
ter1	10chbk	-0.2077	0.0097	-0.2268	-0.1886	453.89	<.0001
ter1	11chnm	-0.3720	0.0096	-0.3908	-0.3531	1502.10	<.0001
ter1	12junbk	-0.2750	0.0097	-0.2939	-0.2561	811.04	<.0001
ter1	13jnam	-0.1674	0.0098	-0.1866	-0.1482	292.55	<.0001
ter1	14kyngb	-0.2835	0.0092	-0.3014	-0.2655	954.86	<.0001
ter1	15kyung	-0.2238	0.0090	-0.2414	-0.2062	621.63	<.0001
ter1	16jeju	0.0000	0.0000	0.0000	0.0000	.	.
bms1	40	-1.0553	0.0646	-1.1819	-0.9287	266.99	<.0001
bms1	45	-0.8963	0.0646	-1.0229	-0.7696	192.36	<.0001
bms1	50	-0.7858	0.0646	-0.9124	-0.6591	147.83	<.0001
bms1	60	-0.5572	0.0646	-0.6838	-0.4305	74.35	<.0001
bms1	70	-0.4714	0.0646	-0.5981	-0.3448	53.22	<.0001
bms1	80	-0.4021	0.0646	-0.5287	-0.2754	38.70	<.0001
bms1	90	-0.2690	0.0646	-0.3957	-0.1423	17.32	<.0001
bms1	100	-0.2305	0.0647	-0.3573	-0.1037	12.69	0.0004
bms1	110	-0.1731	0.0648	-0.3001	-0.0462	7.14	0.0075
bms1	120	-0.1213	0.0649	-0.2485	0.0059	3.49	0.0616
bms1	130	-0.0890	0.0651	-0.2166	0.0387	1.86	0.1721
bms1	140	-0.0819	0.0659	-0.2110	0.0472	1.54	0.2139
bms1	150	-0.0366	0.0670	-0.1679	0.0948	0.30	0.5850
bms1	160	-0.0215	0.0692	-0.1572	0.1141	0.10	0.7556
bms1	170	-0.0529	0.0741	-0.1981	0.0922	0.51	0.4748
bms1	180	0.0346	0.0824	-0.1268	0.1961	0.18	0.6741
bms1	190	0.1445	0.0959	-0.0435	0.3325	2.27	0.1320
bms1	200	0.0000	0.0000	0.0000	0.0000	.	.
gib	1	0.5320	0.1295	0.2781	0.7859	16.87	<.0001
gib	2	-0.3111	0.0057	-0.3224	-0.2998	2934.94	<.0001
gib	3	-0.4473	0.0051	-0.4573	-0.4372	7674.11	<.0001
gib	4	-0.4609	0.0044	-0.4696	-0.4522	10816.6	<.0001
gib	5	-0.6332	0.0041	-0.6413	-0.6250	23414.0	<.0001
gib	6	-0.4058	0.0044	-0.4145	-0.3972	8502.75	<.0001
gib	7	-0.3831	0.0044	-0.3917	-0.3745	7680.90	<.0001
gib	8	-0.3129	0.0027	-0.3182	-0.3075	13026.0	<.0001
gib	9	0.0000	0.0000	0.0000	0.0000	.	.
Scale	0	1.0000	0.0000	1.0000	1.0000	.	.

□ 통계분석의 시사점

- 이상의 Logit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보험가입기간과 보험계약 변경률은 반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Transition Matrix를 이용한 변경확률 계산에서 연도별 변경확률에 방카슈랑스로 변경될 가능성을 곱하여 방카슈랑스로 이동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보험계약기간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추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됨
- 또한, 분석한 모든 변수들이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확률 계산에 유의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별 특성을 감안하여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변경가능성 계산에 활용할 수 있음
- FY'05로 산출된 변경확률은 보험료 수준 및 보험가입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Transition Matrix로 산출된 연도별 변경가능성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변경확률을 계산할 수 있음

나. Transition Matrix를 사용한 방카슈랑스 계약 비율 추정

- 현 계약의 변경확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회사별 유지확률(또는 갱신율)을 사용한 Transition Matrix로 현행 계약의 이동 확률(또는 변경비율)을 산출
 - 금융기관(은행 등)을 경유하여 체결되는 계약 가능성(방카슈랑스의 영향 비율)은 보험회사를 변경할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
 - 계약의 이동확률은 직전계약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Markov Chain Process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 연차별/회사별 유지비율 및 변경비율은 Transition Matrix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 현재 계약이 매년 유지될 확률과 다른 보험회사에서 옮겨온 계약이 유지될 확률을 감안한 회사별 Transition Matrix를 곱하여 년 중앙 기준 계약유지비율 및 계약변경비율을 산출

- 방카슈랑스로 계약이 이동할 비율은 앞서 산출된 변경비율에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정도에 대한 추정값을 곱하여 산출

- 방카슈랑스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할 정도는 방카슈랑스 상품 선호도 32.6%를 사용함
 - 현재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가입할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2005년도 보험개발원 소비자설문조사와 생명보험협회 성향조사 결과만 있으므로, 이를 준용함
 - 이중 방카슈랑스 상품 선호도는 보험개발원 200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함
 - 이는 혼보험신문¹¹⁾에서 보도된 방카슈랑스 영향 추정값과 비교해 볼 때, 산출결과가 유사하였고 통계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임

11) 혼보험신문 2004년 6월 2일자에 보도된 방카슈랑스 도입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 수준이 초기에 전체의 30%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계산식> 은행직원 1인당 연 5건 판매할 경우(35만건) + 점포당 중소거래처 100개소 당 5건 할당시(255만건) = 290만건

- 은행직원 1인당 연 5건 판매 : 7만명(은행직원 수) × 5건 = 연간 35만건
- 점포당 중소거래처 100개소 당 5건 할당시 :

$$5100\text{개소(점포수)} \times 100\text{개 거래처} \times 5\text{건} = 255\text{만건}$$

<표 V-9> 방카슈랑스를 통한 질병·재해 상품의 평균 선호도

구분	선호도
방카슈랑스상품 ¹⁾	32.6%
질병·재해상품 ²⁾	53.0%

주 : 1) 방카슈랑스 선호도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상품 구입의향

2) 질병·재해 상품은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보험(소멸형 및 환급형) 의미

자료 : 보험개발원, 『200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6.

□ 앞서 기술한 가정과 계산논리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음

○ t년차에 방카슈랑스로 변경될 비율 = $(1 - T_{ii}^{(t)}) \times$ 방카슈랑스 선호율
(32.6%) × 제외비율(연령, 선계약)

– T_{ij} : j회사에 가입한 가입자가 i사로 이동할 확률 Transition Matrix

– T_{ii} (유지율) : 계약 변경 전후의 회사가 동일한 비율로 Transition Matrix에서 $i = j$ 인 경우

– $T_{ij}^{(t)}$: t번째 기간에서 j회사의 가입자가 i사로부터 이동할 확률 Matrix

$$T_{ij}^{(t)} = T_{ij}^{(1)} \times \dots \times T_{ij}^{(1)}, \quad T_{ij}^{(1)} \text{ matrix를 } t\text{개 곱하여 산출}$$

□ Transition Matrix를 이용한 방카슈랑스 계약 비율 산출

○ $T_{ij}^{(1)}$

<표 V-10> 첫째년도 Transition Matrix

구분	From(i)			
	대형사	중소형사	비대면사	
To (j)	대형사	79.4%	16.6%	7.3%
	중소형사	5.7%	67.5%	11.2%
	직판사	14.9%	15.9%	81.5%
	합계	100.0%	100.0%	100.0%

- $T_{ii}^{(t)}$: Transition Matrix $T_{ij}^{(1)}$ 는 계약시점의 갱신율이므로 연중으로 환산하여 이동대상 비율 추정(A)

<표 V-11> t차년도 유지비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89.7%	71.6%	57.9%	47.5%	39.6%
중소형사	83.9%	56.9%	39.2%	27.5%	19.8%
직판사	90.7%	74.3%	61.9%	52.3%	44.9%

- t년차에 방카슈랑스로 이동될 연도별 계약비율(B=(1-A)×32.6%)

<표 V-12> t차년도 방카슈랑스로 이동비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3.4%	9.2%	13.7%	17.1%	19.6%
중소형사	5.3%	14.1%	19.8%	23.6%	26.1%
직판사	3.0%	8.3%	12.4%	15.5%	17.9%

- Logit 회귀분석으로 나타난 설명력이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방카슈랑스를 이용하지 않을 계약자 성향을 제외한 방카슈랑스 계약자 비율 산출

- 산출방법 :

- 적용변수 중 은행 이용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연령을 사용(연령 이외 변수는 은행 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차이를 둘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 제외)

- $Rate(\text{제외비율}) = \frac{\text{수정 } P(Y)}{\text{전체 } P(Y)} = \frac{0.2070}{0.2345} = 88.43\%$,

- 제외 대상은 보험회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변수인 연령변수

중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층인 저연령계층(20대 연령층)과 고연령계층(60대)으로 함¹²⁾

- 제외비율은 보험회사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회사별로 산출함

<표 V-13> 연령변수를 이용한 방카슈랑스를 이용하지 않을 비율 산출

연령그룹	구성비	변경확률 (A)	수정 변경확률(B)	비율 (C=B/A)
20~24세	0.40%	0.3565		
25~29세	5.50%	0.3477		
30~34세	14.40%	0.2941	0.2941	
35~39세	18.00%	0.2497	0.2497	
40~44세	18.00%	0.2234	0.2234	
45~49세	16.30%	0.2072	0.2072	
50~54세	11.20%	0.1986	0.1986	
55~59세	7.70%	0.1945	0.1945	
60~64세	4.70%	0.1878	0.1878	
65~69세	2.50%	0.1773		
70세 이상	1.30%	0.1655		
합계	100.0%	0.2345	0.2073	88.43%

○ 산출결과(C = B × 88.43%)

<표 V-14> 연령제외 비율이 감안된 방카슈랑스 계약비율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대형사	3.0%	8.2%	12.1%	15.1%	17.3%
중소형사	4.7%	12.5%	17.5%	20.9%	23.1%
직판사	2.7%	7.4%	11.0%	13.7%	15.8%

12) 은행 면접조사 결과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30대 및 40대 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본 분석에서는 보험가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로 남자에게 있는 반면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여자인 점이 서로 상충되므로 성변수를 제외한 연령 변수만으로 제외비율 산출에 이용함

□ 선계약 비율을 감안한 방카슈랑스로 이동비율 산출

- 선계약은 방카슈랑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계약 비율 만큼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표 V - 15>선계약 구성비

(단위: 건)

구 분	체결건수	선계약건수 (15일이상)	선계약비율
대형사	7,774,208	1,045,229	13.4%
중소형사	2,236,448	237,785	10.6%
비대면사	1,202,091	374,788	31.2%
소계	11,212,747	1,657,802	14.8%

자료 : FY'05 보험회사 실적자료

- 선계약 구성비를 감안한 방카슈랑스로 이동비율(D)
 - 방카슈랑스 평균 이동비율(직판사 제외)은 15.4%임

<표 V -16> 선계약 비율이 반영된 방카슈랑스 계약비율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2.6%	7.1%	10.5%	13.1%	15.0%
중소형사	4.2%	11.2%	15.7%	18.7%	20.7%
비대면사	1.8%	5.0%	7.5%	9.3%	10.8%

주: $D = C \times (1 - \text{선계약 비율})$

□ 추정된 방카슈랑스 계약비율을 보험료 수준으로 환산(E)

- 앞서 추정한 방카슈랑스 계약비율은 건수기준 비율이므로 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비율을 추정하면 약 15.7% 수준임

<표 V-17> 유지계약과 변경계약의 보험료차이 반영 방카슈랑스 계약비율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2.6%	7.1%	10.5%	13.1%	15.0%
중소형사	4.5%	11.8%	16.5%	19.5%	21.6%
비대면사	2.2%	6.2%	9.2%	11.5%	13.3%

주 : E = D × 변경계약평균보험료 ÷ 유지계약평균보험료

2. 방카슈랑스 영향 분석

<요 점>

- 대형보험사가 주로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시나리오 I)는 중소기업의 수지가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영업수지가 약 331억원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수지 적자규모가 대형사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보험사가 주로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시나리오 II)는 대형사의 수지가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약 383억원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형사의 영업수지 적자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됨
- 방카슈랑스 효과가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시나리오 III, 현행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 341억원 정도 영업수지 악화가 예상되며, 대형사와 중소기업의 영업수지 적자규모가 시장점유율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됨

가. 가정

- ① 자동차보험 대리점 수수료율은 대리점과 손해보험회사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방카슈랑스의 경우 금융회사의 협상력이 높아 보험회사에게 높은 대리점 수수료율(독립대리점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가정 : 금융회사와 보험회사간의 힘의 역학관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현상을 가정하여 분석
- ② 방카슈랑스 효과가 독립대리점과 기타 채널조직 구성비만큼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 ③ 회사별 사업비 중 고정비 대 변동비 구성비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④ 방카슈랑스 계약체결로 판매채널 점유율 증가효과를 약 20%수준으로 가정(최근 생명보험에서 소행사들의 저축성보험 내 MS가 방카슈랑스 계약체결 증가에 따라 약 20% 증가된 점을 감안)
- ⑤ 방카슈랑스 대상 보험종목은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함)의 일반물건으로 한정
- ⑥ 전업사(온라인판매)는 방카슈랑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
- ⑦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사업비율 및 손해율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 ⑧ 방카슈랑스로 인한 효과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성장률은 감안하지 않음

나. 시나리오 1 :

영업제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방카슈랑스 계약체결이 금융기관(은행 등)과 대형 보험회사가 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가정

-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경우 5차 년도에는 약 331억원 정도 영업수지가 추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방카슈랑스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의 영업수지 악화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요인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대리점수수료율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소형사의 경우가 영업수지 적자규모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은 고정사업비를 만회할 수 있는 MS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때문임

<표 V -18> 방카슈랑스로 인한 추가 영업수지 효과

(단위: 억원)

회사집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형사	1	-3	-14	-27	-41
중·소형사	-59	-158	-222	-263	-291
전업사	-	-	-	-	-
합계	-59	-161	-236	-291	-331

-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경우 사업비율도 5차 년도에는 약 29.5%수준으로 현행보다 0.7%(p)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 고정사업비의 문제로 중·소형사의 경우 사업비율 악화 현상이 대형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대형사 : 0.5%(p), 중소기업사 : 1.4%(p))

<표 V -19> 방카슈랑스로 인한 사업비율 효과

회사집단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28.4%	28.5%	28.6%	28.8%	28.9%	28.9%
중·소형사	29.9%	30.2%	30.7%	30.9%	31.1%	31.3%
전업사	29.2%	29.2%	29.2%	29.2%	29.2%	29.2%
합계	28.85%	28.97%	29.18%	29.33%	29.44%	29.52%

- 사업비율 증가현상이 반영되어 합산비율도 현재보다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5차년도에 약 3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V-20> 방카슈랑스로 인한 합산비율 효과

회사집단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중·소형사	107.3%	107.5%	108.0%	108.3%	108.5%	108.6%
전업사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합계	103.82%	103.94%	104.15%	104.30%	104.41%	104.49%

<표 V-21>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료 증가 효과

(단위: 억원)

회사집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형사	28	80	122	156	183
중·소형사	34	90	127	151	167
전업사	-	-	-	-	-
합계	62	171	250	307	350

다. 시나리오 II :

영업제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방카슈랑스 계약체결이 금융기관 (은행 등)과 소형 보험회사들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I 에서와 동일하게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경우, 영업수지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차 년도에는 약 383억원 영업수지 악화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요인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대리점수수료율의 증가 등에 기인하며, 대형사는 고정사업비와 시장점유율이 커서 시장점유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영업수지 적자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Ⅱ에 따르면, 방카슈랑스가 중·소형사 위주로 체결 운영될 경우 중소기업사는 방카슈랑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2> 방카슈랑스로 인한 추가 영업수지 효과

(단위: 억원)

회사집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형사	-112	-309	-459	-574	-661
중·소형사	46	126	189	239	277
전업사	-	-	-	-	-
합계	-66	-183	-270	-335	-383

- 시나리오 I 과 동일하게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경우 사업비율도 5차 년도에는 약 29.5%수준으로 현행보다 0.7%(p)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형사의 사업비율이 악화되나, 중·소형사는 사업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사의 경우 고정사업비 구성비가 크므로,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가 크기 때문임

<표 V-23> 방카슈랑스로 인한 사업비율 효과

회사집단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28.4%	28.6%	28.9%	29.2%	29.4%	29.5%
중·소형사	29.9%	29.9%	29.8%	29.7%	29.7%	29.6%
전업사	29.2%	29.2%	29.2%	29.2%	29.2%	29.2%
합계	28.85%	28.96%	29.17%	29.32%	29.44%	29.52%

- 사업비율 증가현상 등이 반영될 경우 합산비율도 현재보다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몫은 방카슈랑스 도입 후 5년차에 총 348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V-24> 방카슈랑스로 인한 합산비율 효과

회사집단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102.5%	102.7%	103.0%	103.3%	103.5%	103.6%
중·소형사	107.3%	107.2%	107.1%	107.1%	107.0%	106.9%
전업사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합계	103.8%	103.93%	104.14%	104.29%	104.41%	104.49%

<표 V-25>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료 인상 효과

(단위 : 억원)

회사집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형사	66	182	270	337	389
중·소형사	-5	-15	-24	-33	-40
전업사	-	-	-	-	-
합계	60	167	246	304	348

라. 시나리오 III:

현재 보험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영업제한 조치(25%를 등) 하에서 방카슈랑스 계약체결이 골고루 분포된다고 가정

- 시나리오 III에서는 영업수지 적자가 5차 년도에는 약 341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V-26> 방카슈랑스로 인한 추가 영업수지 효과

(단위: 억원)

회사집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형사	-43	-118	-175	-218	-251
중·소형사	-19	-49	-69	-82	-90
전업사	-	-	-	-	-
합계	-61	-167	-244	-300	-341

- 사업비율은 중·소형사 및 대형사 구분 없이 현행보다 추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5차 년도에는 약 29.5% 수준으로 현행보다 0.7%(p)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표 V-27> 방카슈랑스로 인한 사업비율 효과

회사집단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28.4%	28.5%	28.7%	28.9%	29.0%	29.1%
중·소형사	29.9%	30.1%	30.3%	30.5%	30.6%	30.7%
전업사	29.2%	29.2%	29.2%	29.2%	29.2%	29.2%
합계	28.85%	28.96%	29.17%	29.32%	29.43%	29.51%

- 합산비율도 중·소형사 및 대형사 구분 없이 현행보다 추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5차 년도에는 약 104.5%수준으로 현행보다 0.7%(p)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표 V-28> 방카슈랑스로 인한 합산비율 효과

회사집단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형사	102.5%	102.6%	102.8%	103.0%	103.1%	103.2%
중·소형사	107.3%	107.4%	107.7%	107.8%	107.9%	108.0%
전업사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합계	103.82%	103.93%	104.14%	104.29%	104.40%	104.48%

-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료 변경 효과는 전체적으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5년차에 약 341억원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인상효과는 대형사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대형사의 MS가 크기 때문임

<표 V-29>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료 인상 효과

(단위: 억원)

회사집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형사	43	118	175	218	251
중·소형사	19	49	69	82	90
전업사	-	-	-	-	-
합계	61	167	244	300	341

3. 시사점

<요 점>

-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독립대리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영업수지 추가 악화가 예상됨
- 영업수지 악화가 요율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결국 보험소비자가 요율인상을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 발생
- 자동차보험 상품은 신시장이 창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방카

슈랑스로 계약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체결될 경우 모집조직 구조조정의 단초로 작용할 개연성이 큼

-
-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MS 변화에 따른 고정사업비 비중 증가 문제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위가 독립대리점 수준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른 추가 사업비율 증가로 영업수지 악화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료 증가효과 만큼의 보험료 인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경우, 영업수지 악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방카슈랑스로 인해 보험소비자는 오히려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자동차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경성시장(Hard Market)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업수지 악화는 보험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중소형사는 다소 영업수지 개선 및 시장 점유율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영업수지가 개선되지 않음
 -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시장점유율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이익을 가장 크게 향유할 것으로 예상됨

 - 전업사(On-Line사)는 방카슈랑스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 이유는 방카슈랑스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의 이점이 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의 직판회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은 새로운 판매채널로 인한 시장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약비율만큼 기존

대리점 및 설계사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임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판매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즉, 자동차보험은 새로운 상품개발 또는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으로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가입비율 만큼 대리점 MS가 줄어들
- 기존 대리점이 장기상품의 판매를 늘려 수익을 보존하지 않는 한, 채널점유율이 줄어드는 만큼의 대리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방카슈랑스로 인한 대리점 수입 감소를 이용하여 모집인 탈락비율을 산출하여 보면,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로 인한 모집인 추가 탈락자 수는 5년 뒤에 약 1만 3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방카슈랑스 효과를 모두 감안할 경우 약 19,064명¹³⁾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

<표 V-30> 모집조직 탈락비율(또는 구조조정 비율) 추정

(단위 : 명)

구분	모집인 탈락비율			탈락자	
	방카전(A)	방카후(B)	차이(C=B-A)		
표준편차	74.9만원	27.9%	39.3%	11.4%	13,143

- 주 : 1. 모집수수료 분포는 Normal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2. 보험모집을 하지 않을 BEP(Break Even Point)로 130만원(기회비용 100만원+활동 비용 30만원)을 가정
 3. 모집인 월수입액 표준편차는 생명보험 모집인 월수입액 분포를 준용(손보 월수입액이 생보보다 낮은 면을 감안하여 생보 분산의 50% 수준으로 가정)
 4. 탈락자는 '06.5월 기준 손해보험 모집인 및 개인대리점 수를 합산한 기준으로 산출

자료 : 1)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6.7월
 2) 기타 업계자료

13)[21.2%(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비중)+19.1%(장기보험 방카슈랑스 비중)]/21.2%-1의 50%만큼 추가로 이탈을 증가, 50%로 가정한 이유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판매가 중복되는 것을 감안함